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2월 1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지카바이러스 감염 국가를 여행한 사람들 중 감염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다

*보건부, 지카바이러스 정보 전화(1-888-364-4723)를 설치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보건부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 중 의심 중후가 있는 사람들에게 첨단 연구소 테스트를 제공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Wadsworth Center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센터는 이와 같은 종류의 첨단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으로 미국에 3곳 밖에 없는 주립 실험실 중 한 곳으로, 여기에는 지카 및 기타 관련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항체 검사 및 확인 테스트도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뉴욕주는 뉴욕주민들이 전화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 핫라인(1-888-364-4723)을 설치하였습니다.

“뉴욕주와 그 주민들의 건강을 보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CDC 및 현지 보건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 질병에 미리 대처하고 공중 보건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지카바이러스 감염국에 다녀온 뉴욕주민이라면 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Wadsworth Center는 첨단 과학 시설로서 뉴욕주민들은 지카바이러스와 기타 전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또한 보건부에게 현지 보건부 및 보건서비스업체에게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최신 정보를 숙지하도록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 테스트는 지카 테스트를 위한 일부 시약을 제공하는 질병관리예방센터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Wadsworth와 보건부의 전염병학자들도 감염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기타 위험 집단을 평가하기 위해 CDC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 가이드라인은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가 더 많아질수록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와 안내가 나오는 대로 보건부도 건강주의보를 현지 보건부에게 내릴 것입니다.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지카바이러스 정보 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1-888-364-4723.

지카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대개 매우 순한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아무런 문제 없이 회복되긴 합니다. 그러나 임신부 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소두증이라고 하는 선천적 장애 사례가 늘어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과 함께 최근에 [발병국](#)을 여행하고 온 사람들은 보건전문의에게 연락하여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g. 지카바이러스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 또는 결막염(충혈된 눈)입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감염된 모기에 물린 후 2일 - 7일 만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 임신부에게 테스트를 제공하는 것에 가장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임신부와 의사에게는 올바른 보건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Howard Zucker 보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현재 관련 데이터가 거의 없는 과학자들에게도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것입니다.”

Zucker 장관은 오늘 뉴욕주 내 1,200여명의 참가자들에게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웨비나를 내놓았고 보건부가 뉴욕주민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을 알렸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욕주민들 가운데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양성을 보인 사례가 9건입니다. 감염된 모든 환자들인 지카바이러스가 발생한 나라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지카바이러스는 흔한 사람간 감염을 통해 확산되지 않으며, 뉴욕에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자들의 많은 여행 관련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DC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과 일부 국가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경보(Level 2-Practice Enhanced Precautions)를 발령하였습니다.

임신 3개월이 넘은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연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임신부는 먼저 주치의 또는 기타 보건기관에 이야기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해 여행시 모기에게 물리지 않기 위한 대책을 엄격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 소매가 긴 셔츠와 긴 바지를 입는다
- 모기 활동이 많은 시간에는 실내에 머무른다
- 미국 환경보호기관에 등록된 모기퇴치제를 사용한다
- 모기퇴치제 과다 사용을 피하되 보호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한다
- 모기퇴치제 사용 전 지시사항을 숙독하고 따른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으로 보도된 나라를 여행한 후 2주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발열, 발진, 관절통 또는 충혈이 발생하는 사람은 담당 주치의를 만나야 합니다. 담당 주치의에게 여행을 다녀온 국가를 알려줘야 합니다.

지카바이러스 전파가 발생하고 있는 특정 지역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CDC는 정보가 나오는 대로 최신 여행 고지문을 발표할 것입니다.  
여행객들은 CDC 여행 웹사이트를 자주 방문하여 최신 권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더 많은 뉴스가 다음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